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러시아유라시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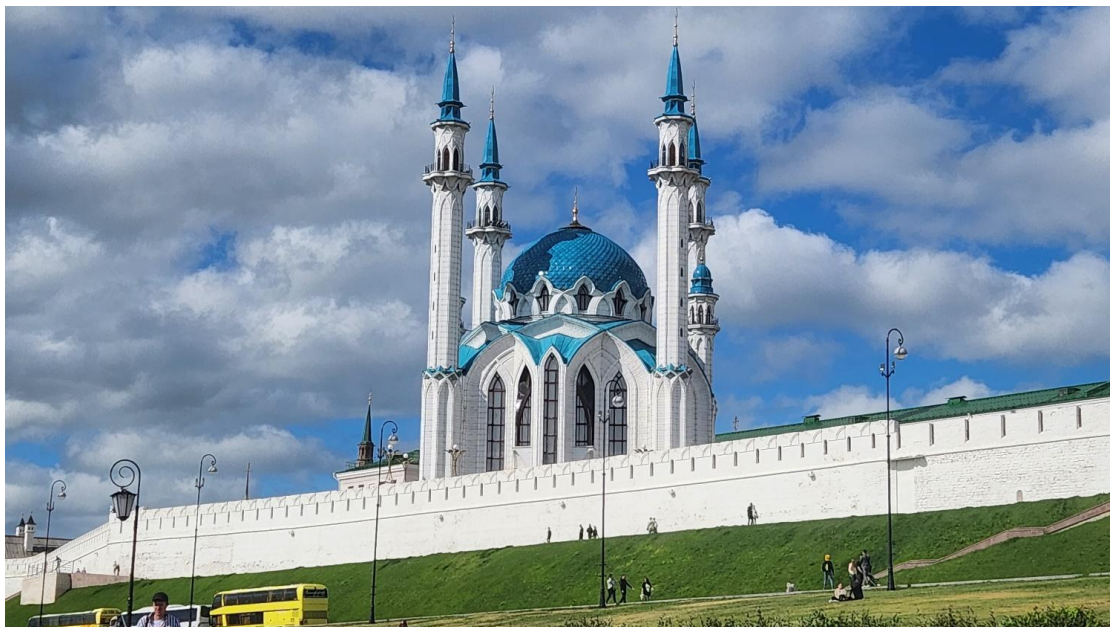


러시아 내 타타르 민족의 나라, 타타르스탄의 라마단 이프타르

강경민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이슬람 대명절인 금식월(우라자, Ураза) 라마단이었고, 4월 23일은 라마단 종료 기념일이였다. 이후 6월 28일은 이슬람력으로 12월 10일로 6월 30일까지 3일간은 이슬람 희생제라 불리는 이드 알하드아 (Eid Al Edha) 명절이였다. 희생제는 아브라함이 알라에게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염소를 바친 것에서부터 유래하는데, 현재는 한 가정 당 한 마리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의미로 도축하여 3분의 1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어 먹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한편 러시아연

방내 투르크 민족 거주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이슬람’을 연방 주체인 공화국의 국교로 삼고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내가 거주 중인 타타르스탄 공화국(따따르스탄, Татарстан) 카잔 (Казань)은 수니파 계통인 하나인 알하나피야계 무슬림이 대다수인데, 무슬림 개개인의 독립적인 종교 활동도 보장한다. 동시에 종교 교리보다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 하는 세속주의 성향이 짙다. 전국민의 약 65% 이상이 타타르의 전통을 따르는 카잔-타타르계와 러시아-타타르계 혼혈이 차지하는 타타르스탄만의 독립적이면서



개성 있는 음식 문화가 특징이다.

우라자(금식) 이후의 저녁 식사 «이프타르»(Iftar, افطار) 만찬

이프타르는 단식을 깨는 행위인 '저녁 식사'를 의미하며 국가와 민족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수니파인 타타르스탄공화국은 카잔 아레나(카잔월드컵경기장)를 포함한 지역 단위별 모스크와 식당에서 만찬 형태의 아프타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를 넘어 모임을 통한 이해와 대화의 자리라는 특징이 있다. 나는 지난 4월 9일, 현지 타타르인인 지인들과 함께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 위치한 투르크 레스토랑 타웁수(Tawooks)에서 이프타르를 보냈다. 2023년 현지에서 경험한 라마단의 이프타르를 순서대로 기록해본다.

바클라바 (Baklava) : 타타르스탄, 튀르키예 등 투르크 민족 거주지역에서 식전 또는 식후에 먹는 단과자류이다. 바클라바는 피스타치오, 꿀, 밀가루를 8겹으로 얇게 펼쳐서 만든다.

투르크 카흐베시 (Türk Kahvesi, 투르크 커피) : 투르크 문화권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커피다. 오스만투르크 지배권과 가신국이 있었던 코카서스, 크림반도와 발칸반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커피다. 커피 맛은 에스프레소 알갱이가 느껴질 정도로 진했다. 우리 일행은 이프타르 전에 투르크 커피를 마셨고, 커피를 다 마신 후 커피잔을 뒤집어서는 거꾸로 놓은 후 커피잔 바닥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며 이프타르 식사를 했다. 이프타르 후에는 서로의 커피잔에 남은 커피 찌꺼기의 모양을 보며 커피 점을 봐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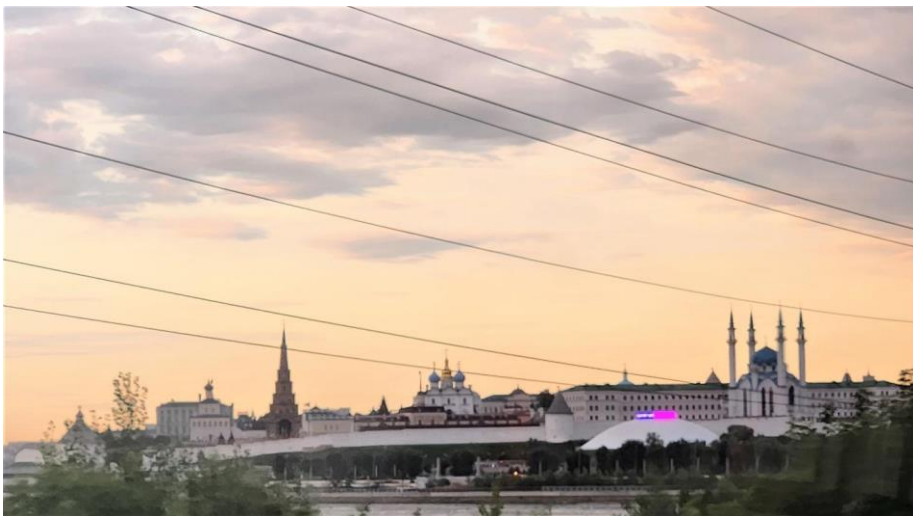
이프타르(식사) : 타타르 민족에게 라마단 기간 동안 이프타르에서 음식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타타르민족에게 이프타르는 서로에게 하루 동안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금욕의 경험을 주고 받는 시간이다. 서로 각자 다른 메인 식사 1개씩을 먹었는데 나는 닭구이(타타르어: Тауык шише, 타북쉬췌)를 메인 식사로 선택했다.

커피 포트로 된 차이(홍차) 나누어 마시기 : 타타르어권에는 '태어날 때부터 홍차 손가락을 물고 태어난다', '집의 홍차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은 다행이라는 의미'라는 고(古)어가 남아있다. 홍차는 투르크 민족에게 인생의 평안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문화코드다. 이프타르 식사 후에는 이층 구조로 된 홍차 포트 가득 홍차를 끓인 후 둘러 앉아 함께 홍차를 나누어 마시는 문화가 있다. 우리도 식사의 마무리 의식으로 홍차를 마시며 각자의 삶에서 즐거움의 경험과 그동안의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의 미래를 주고받으며 아프타르를 마무리했다.

이스탄불에서 약 6년, 카잔에서 5년째 시간을 보내며 경험한 투르크 세계의 라마단은 매번 새롭다. 같은 투르크 민족이라 할 지라도 각 지역마다 그리고 그 해의 국가 분위기마다 라마단의 분위기가 매번 다르다.

라마단 이프타르 만큼은 정교회를 믿는 러시아인도 무슬림인 타타르 민족과 러시아-타타르 혼혈과 어울리며 식사를 하는 문화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타타르스탄에서 맞이한 네 번의 라마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낀 것은 종교를 넘은 ‘이해, 포용, 양보, 용서’라는 라마단 이프타르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러시아연방의 구성원 중 하나로 타타르스탄공화국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국제정치상황에서 그래도 민족과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기를.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기를.

라마단 ‘일몰 후 기도문’을 읽어보며 바라본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